

智異山 北邊과 海上公園의 悖情

崔 光 烈

內陸開發의 새 모습

한 여름의 勞使紛糾의 뜨거운 맛 바람이 태풍과 함께 몰러가자, 이번에는 몰아다치는 대통령 선거열풍을 잠시나마 피해보려고 느닷없이 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대로 이튿날 새벽, 부웅 마치 地上天國에라도 떠나는 기분으로 서울을 떠났다. 一行은 셋 아니 운전사와 넷이다.

11월 1일 아침 6시 30분의 일이다. 일요일이라 天安 고속도로 휴게소의 아침식사 시간에는 많은 레저人口가 붐비고 있었다. 다시 한달음으로 全州를 거쳐 南原까지의 江邊道路는 5년전에도 지나간적이 있지만 左邊의 계류는 오랫동안의 원거리 旅行을 마음 뿌듯하게 물결과 河床의 경치를 즐길 수 있었다. 任實까지의 다소 험한 兩邊의 山壁을 보면서 南原에 도착, 廣塞樓와 土酒맛을 보고 求禮로 直行했다. 求禮初入의 大橋부근에는 섬진강 상·中流의 맑은 물의 淡水魚를 장만하는 관광식당들이 한창이며, 銀魚철의 마지막 미각을 돋구는 듯 했다. 大山과 江이 세갈래 分岐點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그 중심부에 서울의 변두리 한구석을 떼어다 놓은 골목이 좁은 곳이었다. 제법 서울식당의 흥내를 내고 있는 “동호식당”에는 마침 결혼식손님이 붐비고 있어 겨우 소주 한잔에 돼지고기의 맛을 보고 한시간 후에는 화엄사 入口의 智異山 콘도미니엄호텔에 묵게 되었다.

이 일대는 세번째 와보는 처지였는데 사실상 부근의 숙박이나, 도로, 관광시설은 10년전과는 隔世之感을 주었다. 어떻게 이러한 관광붐

이 시골 마을의 경제적 소득균형과 함께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후 4시경의 華嚴寺계곡은 이슬비와 雲霧에 쌓여 있었다. 생동하며 수시로 걷혔다 개었다 하는 自然의 結集水分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고, 5시가 지나자 도로변은 겨우 조용해지고 나는 계곡으로 가서 비에 젖으며 돌을 찾았다. 이러한 순간을 위해 도시를 떠났는지 모른다. 그렇다 순간의 안락에 비치는 아니 고갈된 말초신경의 그 深層에 자리잡은 人間의 또는 生物的의 고통과 불안에 위안을 주려고 한달음으로 여기로 왔던가.

저녁에는 토종닭을 사다가 운전기사가 손수 요리를 해서 한잔술을 곁들이고 식사를 끝낸 후 소파에 기대어 몇마디 얘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그에앞서 호텔로비에서 老姑山莊의 威泰式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은 河東으로 해서 平州로 빠질 계획을 바꾸고, 西北쪽 지리산에 개설공사가 진행중인 泉隱寺入口에서

차일봉엿을 지나서 달궁에서 반선에 이르는 30km의 포장관통도로를 直行하기로 했다.

이 코오스를 거의 工事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런지 共榮土建의 공사현장에는 관광객의 通行관리에 극히 불친절한 처리를 하고 있었다. 친은사入口의 매표소에는 엄연히 입장표를 팔고 있는데도 工事현장의 직원이 車輛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간섭하고 어떤 차량은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서 安全守則을 운운하고 있어서 每事가 現場人의 특권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친은사入口로부터 1천 4백여 m나 되는 차일봉 밑까지의 山勢는 단풍철을 타고 엷은 안개속에 樹木은 한층 푸르고 싱싱하고 그리고 滿山紅의 짙은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었다. 차일봉 아래의 성산재에서 차를 내려 한시간 쯤 걸어서 노고단산장을 찾았다. 모든 山勢는 五里霧中에 가리워 可視거리는 20m정도에 그쳐, 그야말로 暗中 모색하듯 물소리를 따라 공사중의 도로를 올라 갔다.



山莊에 도달하여 건강을 회복한 威씨의 모습을 보며 그럭저럭 수년만의 악수를 나누고, 좀체 出入을 안시키는 이른바 畝宅 안으로 안내되었다. 매실주니 인삼주니 하는 술꾼의 구미를 돋구는 自然酒를 상대로 그 옆에 거의 건축이 끝난 2층의 새 山莊의 호화롭고, 거창한 모습을 보면서 8.15전에 이 山頂에 있었던 外國人神父들의 벽돌山莊을 상기했다. 한국국립공원협회 지리산국립공원 全南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山岳人 威씨의 17년간의 노고와 앞으로의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책무를 함께 얘기하면서 한시간도 채 안되어 1시경에 이별을 했다. 성산재에서 달궁으로 빠지는 길은 그 이전의 가파르고, 험한 상향로와는 달리 유연하고 완만한 곡선로가 되어서 꽤 드릴을 느끼고 주변 山勢의 경관에도 꽤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코오스였으나, 오리무중에 빠진 시계의 답답함에 一行의 主人公인 천성욱사장은 노상 안타까움을 연발하고 있었고, 詩人인 金大成씨는 침묵 속에 詩想에 잠기고 있었고, 나는 好調로운 술기운에 아예 세상을 잊고 있었다. 계속 下行을 하다가 도중에 평지대가 있고 정거장과 주택들이 10여채 보이는 곳이 달궁이었다.

몇몇 일꾼들이 平地작업을 하다가 길가의 식당에 들어가고 있었고, 갈나무에는 무방비상태로 수백개의 갈알이 빨간 색깔을 자랑하고, 市場에서의 진열품보다는 더 산채로 보였다.

一行의 車는 좀더 내려가다 계곡 폭이 넓어진 길가의 礮石이 있는 길가의 식당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雨中の 이슬비는 水簾을 드리운 듯 이곳 젖나무와 단풍이 우거진 山勢를 몽롱한 시야에서 바라보게 하고 길손은 주막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유리병속에 五味子酒니 더덕술이니, 머루술 등등의 화려한 五色酒에 눈독을 드리고, 또한 살아 꿈틀거리는 뱀을 구경하면서 비로소 深山幽谷에 온 삶의 실감을 느꼈다. 인간은 끝내 다른 動物

物과의 相關의 存在임을 한층 실감하고 몇잔의 술 아니 色水를 마시고, 반선으로 나와서 88고속도로를 거쳐 함양, 山淸을 거쳐 南江의 上流로부터 점차 江폭이 넓어지는 晉陽湖一帶를 지나 晋州·泗川에서 三千浦를 지나면서 마침내 바다를 보게 됐다.

海上公園의 幻想曲

三千浦海城은 閑麗海上 國立公園에 속한다. 필자는 전에 南海大橋로 南海섬을 건넜고, 三千浦에서 固城-馬山까지의 海邊道路의 여행을 해서 南海안일대가 內陸의 湖水의 연장으로 생각될만큼 평온하고 잠자는 海상의 風情에는 나름대로의 환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저녁 忠武市로 접어들면서 鶴섬에서부터는 점차 더 넓은 광막한 바다를 연상했다. 忠武市는 병목같은 接地로 이어졌으나 역시 섬에 틀림없고, 그 바다에 펼쳐진 山陽島며 巨濟島며 閑山島 그리고 이 해상수역의 모든 大小섬들은 나의 大陸的 현실감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고립된 海협의 고독한 섬의 사연에 한층 미지의 눈길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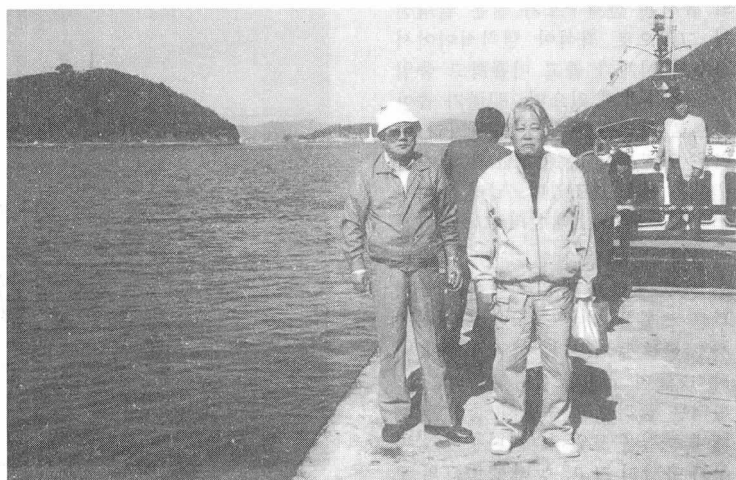
이 해역은 養殖어장의 모습이 새로운 관심을 쏟게 하고, 굴, 합작,

김, 기타의 어패류의 生産과 관계 제 조공장의 활발한 움직임은 역시 개발사업의 일면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忠武市는 水産산업도시로 좁은 공간에 많은 人口와 市場형성이 활기를 띠고 있는 反面에 도시개발은 뒤지고 있었다.

11월 3일, 우리는 山陽島의 一週行을 하고, 주변 섬을 指呼間에서 바라보면서 한편 굴곡이 심한 섬마을의 생활상의 쉬임없는 삶의 현장— 조용하면서도 마을공동체적인 생활수단인 농업과 어업의 조출한 모습과 忠武市 주변의 소형조선업이나 加工業 그리고 動的인 海上운송의 활동상은 南海人口의 실존을 보게 했다.

忠武市는 어업항구와 교통·관광해운의 두 쪽으로 港口부두의 분리가 추진중에 있었다.

山陽島는 본시 미륵도로 불리우며 400여m가 되는 미륵산의 山頂은 멀리 蓮花島니 거제도와 한산도 등까지의 烽火台가 있었던 곳이요, 북쪽계곡에는 용화사가 있고, 西紀 937년에 세워졌으니 1천년의 역사를 지니면서 도솔암이니, 관음암이니 불리우면서 본래는 密敎系 寺刹이 아니었던가 한다. 山頂의 봉화대는 멀리 西南의 연화도, 육지도와 東南의 「매물도」와 거제남단까지의 전망대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다.



閑山島 船着부두에서 본 北碇海上

이날 오후는 코오스를 忠武와 固城의 북쪽으로 돌려 李忠武公이 왜적과 싸운 唐項浦의 기념비가 있는 마을에서 갈매기가 浦口의 갯벌에 쉬고 있는 근처의 횃집에서 잡어의 회로 점심을 먹은 후, 다시 玉泉寺로 직행했다. 도중의 대가면에는 도로 포장도 진행중이었고, 蓮花山 계곡은 약 640m의 병풍에 둘러싸인 古色 장엄한 寺刹을 품에 안고 조용한 湖水를 초입에 담고 있었다. 西紀 678년에 義湘대사가 세웠다는 오랜 유래를 가진 이 사찰은 玉泉閣에서 솟아나는 石水로 유명하다. 고려말의 怪僧 辛旽이 밀양부근의 玉川寺의 부엌대기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기록이요, 아마 고성북쪽의 이 玉泉寺에서 行者노릇을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러棟의 부속건물 속에는 이 俗世를 멀리한 절을 찾아온 누군가가 조용히 自己營爲를 하고 있는 듯 너무나 조용했다. 이 옥천사의 분위기는 서울근교나 다른 지방의 大刹이나 古刹에서 찾지못하는 그런 沈默의 特性을 느끼게 했다. 요즘 寺刹은 자기 정화와 名刹 兩極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 아닌데가. 우리는 泉水를 한껏 마시고 心身의 淨化를 깊숙히 했다.

11월 4일, 이날은 遊船부두에서 배를 타고 閑山섬과 거제도남단의 해금강까지의 관광행차를 했다. 부두의 유선은 선체구조가 낡은 열락선의 그것으로 좌석이 열착식이어서 좌우의 시계가 좁고 미흡하고 출입구도 전후쪽에 있으며, 船道가 좁아 참으로 어색했다. 한산도까지의 수면은 잔잔해서 時速 50km의 쾌속한 운항은 매우 호조였다. 널리 알려진 李忠武공의 閑山大첩의 그 바다를 가면서 약 3백년 전의 그날을 상상하고 한껏 푸르고 맑은 하늘아래 역시 푸른 해협을 가른 심정은 상쾌하면서도 한편 무거웠다. 섬의 부두에 내려 戍棲며 制勝臺이며, 영안실로, 활터를 둘러보고 주변의 울창한 樹種에 눈길을 모았다. 전나무와 삼나무가 유달리 크고, 동백꽃 眞紅의 모습은 강열한 정취를 자극했으며, 중

려나무와 倭種상록수 등은 가을 정오의 햇살의 따사로운 大氣속에 한껏 무성했다. 넓은 해역을 등지고 北向의 아늑한 浦口는 四方에 흩어진 섬과 함께 大海戰의 비극은 잊은 듯한가로왔다.

一行의 遊船은 좌론 거제도과 추암도 용초도 사이를 가로질러 長蛇島, 加五島의 섬마을과 학교 그리고 通信施設을 구경하면서 멀리 수평선 너머의 대마도를 바라보며 나아갔다. 해금강일대의 거제도 남단은 수면에서 2-3m의 하얀 띠의 곡선이 굴곡을 따라 이어지고, 암벽에는 古代의 인도벽화나 山주름처럼 주름과 결로 장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해금강의 狹串島의 암벽은 古代 2리스의 大理石조각처럼 2, 3m정도의 段層구조의 수려하고 기괴한 암벽조각이 人工의 그것처럼 묘미를 다하고 海上에 40m 정도의 높이 岩石이 서너개 共存하고 있었다. 이 해역에서 동쪽편이 長承浦와 玉浦의 조선소가 있는 곳이요 또한 구조라해수욕장이 전개되는 해안이 되는 셈이다. 섬둘레가 7백리라면 아주 큰 섬이요, 주변의 발전상에 비하면 해금강의 작은 浦口의 관광호텔이나

마을은 너무나 왜소하고 한산한 곳이었다.

이 한려해상공원은 수백개의 섬해역이요 무인도와 極貧이 숨쉬는 섬도 많고 더러는 고기잡이 기타로 富島도 있으나 全面的으로는 麗水에서 鎭海까지의 해역개발은 새로운 海運業과 수산업, 관광업의 재정립이요 망되는, 아직은 자연조건이 活性化된 그런 해역은 아니었다.

물론 모든 公園開發은 보호와 육성의 양면에서 아니 지역사회의 발전과 自然生態系의 보존을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무모한 개발은 反作用을 가져오기 마련이지만 이제 韓半島의 생활권은 그만큼 더 무겁고 긴요한 보다 많은 연구와 대책을 안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5월에 필자는 혼자서 馬山공단과 邱馬도로를 거쳐 大邱에서 각각 一泊을 하고 時時刻刻으로 변모하는 사회보다 많은 기대와 욕구에 벽차 있을 사회를 선거출마자들과는 전혀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一週間의 여행을 마무리 했다.

〈筆者：文學評論家〉



忠武市 山陽島 南端에서 西南海를 바라보는 筆者